

## 농 촌 잠 언

박 훈 서(목사, 충주 아촌교회)

▶ **사람의 혀는 뼈가 없어도 사람의 뼈를 부순다**

뼈 없는 혀의 잘못된 말로 인해 상대방의 뼈를 부술 정도로 상처를 입힐 수 있음을 나타낸 말이다. 말조심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는 말이다.

▶ **눈먼 탓이나 하지 개천 나무래어 무엇하라**

실수해서 물에 빠진 사람이 개천을 나무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을 뜻한 말이다. 자신의 실수를 다른 사람이나 다른 데로 돌리지 말고 자신을 탓해야 함을 이르는 말이다.

▶ **작은 도둑은 사형을 하고 큰 도둑은 존경을 한다**

실제로 좀도둑은 실형을 내리고 국가에 큰 타격을 준 경제사범은 봐주는 예가 종종 있어왔다. 작은 도둑이든 큰 도둑이든 죄를 지은 것은 다름이 없다. 죄를 지은 댓가는 지은 정도에 따라 공평히 내려져야한다. 위 속담은 잘못된 사회적 관념을 비웃는 말이다.

▶ **중매 보고 기저귀 장만한다**

중매를 본 것은 아직 결혼이 결정되어지지 않은 시점인데 이미 결혼이

성사되고 가정을 이루어 애를 낳을 것을 대비해 기저귀를 장만한다는 것인데 너무 앞서가는 사람이나 조급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.

▶ **계집 둘 가진 놈의 창자는 호랑이도 안 먹는다**

두 여자를 거느리고 사는 사람은 두 여자의 시기, 질투나 살림살이에서 오는 온갖 분쟁으로 인해 속이 썩을 대로 썩어 그 창자는 호랑이도 안 먹을 정도라는 것이다.